



있다. PBX (構內交換機) 와 電話機端末은 이미 民間의 參與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들만으로 프랑스 電氣通信市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國營通信機 메이커인 CGCT 가 스웨덴의 에릭슨-마트라그룹에 賣却된 것도 프랑스 通信市場의 開放에 한층 彈力을 불인 것이라 기대가 크다.

民間에게 開放되는 것 중 "注目" 되고 있는 것이 VAN (附加價值通信網) 이다. IBM이나 올리베타가 이미 프랑스市場 參與를 표명, 開放의 時期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VAN에 대해서는 DGT 내부에서도 高度의 S/W 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利益率이 좋다고 하는 점에서 全面的으로 開放하는 것을 망설이는 意見도 아직 남아 있다. 현재, 英國에서는 電氣通信이 完全自由化되고 西獨에서도 이윅고 諮問委員會가 民營化의 方向을 내세웠다. 네델란드는 89년부터 民營移行을 決定했다.

歐洲의 電氣通信에서 主導權을 잡고 싶은 프랑스는 DGT 構想으로써 歐洲의 電氣通信事業體를 美國 벨의 地方電話會社(BOC) 와 같이 나라마다 民營化하여 全體를 美 FCC (聯邦通信委員會) 에 상당하는 EF-CC가 管理한다고 하는 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歐洲의 BOC構想에서도 프랑스는 "盟主" 의 地位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昨年 DGT 는 政府 一般豫算으로의 60億 1千 5百萬 프랑을 포함한 合計 2百億 프랑을 國家豫算으로 納付했다.

이에 따라 財務省에서는, 民間에게 開放하면 DGT 로부터의 納付금이 減少한다고 하여 開放에 難色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내년 행해지는 大統領 選舉 포석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DGT 內部에서는 開放의 날을 「D 데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時期를 향해 準備를 재촉하고 있다.